

피셔 오스트리아 대통령 내외를 위한 국민만찬사

존경하는 하인츠 피셔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각하 내외분
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5년 9월, 나는 뉴욕에서 각하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
제에 대한 각하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각하께서
가장 우려했던 북핵문제도 이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
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각하께서는 ‘공정성과 정당성, 사회적 정의’를 국정철학으로 삼아 오스트리아
의 발전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오스트리아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의 정치적 통합과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도 오스트리아를 매우 좋아합니다. 모차르트와 슈베르트를 배출한
문화예술의 나라,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 온 환경 선진국, 그리고 평화 애호국

인 오스트리아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스트리아가 세계의 모범국가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정보통신과 첨단 전자제품에서, 오스트리아는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기계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협력할수록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번에 서명하는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최근 들어 EU가 확대되면서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과 비엔나 간 직항로가 열렸습니다.

나는 각하의 이번 방문이 우리 두 나라 간의 선린우호와 실질협력 확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오스트리아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쫄 볼(건배)!”